

차단과 방어, 통제와 감시의 4·3성

제주대학교 강사 · 제주4·3연구소 연구원 · 김 은 희

이 글은 4·3당시에 마을마다 쌓여진 4·3성들 중에서 옛 모습 그대로 복원한 조천읍 선흘리 낙선동 4·3성을 바라보며, 4·3성은 언제, 누가, 왜 쌓았을까, 그리고 성안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라는 물음에서 시작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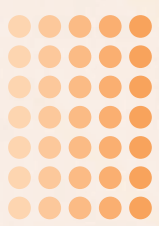
4·3성은 무엇인가?

4·3성이라 함은 제주 4·3사건 기간 동안 토벌대의 명령에 의해 제주도민들이 쌓은 것으로 무장대(산족)와의 차단과 방어, 마을 사람들의 통제와 감시를 목적으로 제주도 마을마다 쌓은 성을 말한다. 당시 정부에서 추진한 4·3성 쌓기는 제주도 4·3 진압작전의 일환이었다. 반면 성담은 제주도민들에겐 마음 편히 살수 있다는 희망이기도 했다. 왜냐하면 성안에 있는 것만으로 신변이 보장 되고, 의심받는 일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 제주도 해안마을 4·3성, 성벽의 모서리에는 성의 안팎을 감시할 수 있는 망루가 있고 성담위에는 보초병을 가장한 돌들이 놓여있다. (『제2연대』앨범에서)

제주 4·3사건에 대한 정부의 진상조사보고서(2003)에 의하면, “1947년 3월1일 경찰의 발포 사건을 기점으로 하여 경찰·서청의 탄압에 대한 저항과 단선·단정의 기치로 1948년 4월 3일 남로당 제주도당 무장대가 봉기한 이래 1954년 9월 21일 한라산 금족 지역의 전면개방 될 때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장대와 토벌대간의 무력 충돌과 토벌대의 진압과정에서 수많은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4·3은 장장 7년 7개월 동안 복잡하고 다양한 사건들이 중첩되어 있어 4·3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는 것은 솔직히 불가능할지 모른다.



4·3성은 왜 쌓았을까?

제주 4·3사건에 대한 본격적인 진압작전이 전개된 것은 1948년 8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10월부터이다. 이어 11월 17일은 제주지역에 계엄령이 선포되었다. 당시 주한미군사령부의 G-2 보고서(1949.4.1)에는, “모든 저항을 없애기 위해 모든 중산간 마을 주민들이 유격대의 도움과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는 가정 아래 마을 주민들에 대한 ‘대량학살 계획’을 채택했다. (중략) 섬에 있는 주택 약 1/3이 파괴됐고, 주민 30만 명 중 1/4이 자신들의 마을이 파괴당한 채 해안으로 소개당했다. 마을이 완전히 파괴되어 버린 45개 마을과 부분적으로 파괴된 43개 마을부터 피난민들이 해안 마을의 수용소로 이동해 왔다.” 고 전한다. 이처럼 제주도에서의 소개작전은 제주 도민들을 폭도의 심정적 동조자 또는 협력자라는 전제 하에 이루어졌다.

중산간 마을의 소개 작전은 탐라 개국 이래 대 이동이었다. 해안으로냐, 산으로냐의 기로에서 중산간 마을 사람들은 오히려 산을 선택하는 사람들도 많았다. 방금 수확한 농작물이나 소나 돼지들을 그냥 두고 떠날 수가 없었다. 그들은 ‘집에서 가까운 곳자왈에 가서 조금만 숨었다가 오면 되겠지’ 라고 생각했다. 설마 폭도라고 죽임을 당하거나, 잡혀가 육지 형무소로 보낼 거라고는 아무도 몰랐다.



▲ 망루 위에서 보초서고 있는 모습

1948년 말, 경찰은 해안 마을부터 4·3성을 쌓으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는 첫째, 산쪽과 해안을 분리하기 위함이고, 둘째, 주민들 통제와 감시를 수월하게 하기 위한 수단이고, 셋째, 마을마다 민보단을 조직하여 주민들 스스로 방어체계를 갖추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해안마을의 4·3성의 폭은 3~4m, 높이 3.5~4m에 이르렀다. 특히 무장대가 지목했던 마을인 한동리, 중문리, 구엄리 등은 이중성을 쌓기도 했다. 제주시와 한림읍은 8km~9km에 달하는 장성으로 쌓았다. 반면 시기에 중산간 마을인데도 한라산과 통하는 전략적 요충지라는 이유로 소개를 피한 마을도 있다. 표선면 성읍리, 애월면 봉성리, 상가리, 수산리, 성산면의 난산리, 삼달리, 신평리, 중문면의 회수리, 서귀면의 토평리 등이다.

4·3성은 누가 쌓았나

4·3성을 쌓는 일은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모두 참가해야 했다. 남자들은 큰 돌을 바닥에 굴러 놓고 기초를 다진 다음 잔돌들을 올려 쌓는 일을 담당했고, 여성들과 어린 아이들, 노인들은 돌을 등짐으로 수없이 나르는 일을 했다. 성담에 돌을 올리다가 굴러 떨어져 죽는 사람도 발생했고, 손이나 발을 찢어 다치는 일은 부지기수였다. 그렇다고 치료비나 보상을 요구할 상황도 아니었다. 돌이 지천에 깔린 제주섬이지만 축성 작업 할 때는 돌이 모자라 산담, 밭담, 심지어 집 울타리 담까지 징발했고, 해안 마을이라도 성 밖에 든 집은 성안으로 소개를 해야 했다.



▲ 애월읍 신엄지서 정문 성담

고 믿으며 혼신의 힘을 다해 쌓았다. 관할 구역 마을마다 돌아가며 성담을 쌓아 어서 빨리 고향에서 살게 될 날을 고대했다.

최초의 중산간 마을 복구는 제주시 봉개리가 ‘함명리’라는 이름으로 선택되었다. 함명리는 2연 대장 함병선의 ‘함’자와 작전참모 김명 대위의 ‘명’자를 따서 붙여졌다. 이어서 선흘리 낙선동에도 4·3성이 쌓여졌다. 그러나 성안은 좁고, 여러 마을이 모여 살았기 때문에 생활은 비참하고, 극심한 위생문제로 전염병이 돌아 사망하는 이도 있었다.

1954년부터는 산간 마을인 청수리, 금약리, 동광리, 해안리, 월평리, 와산리, 덕천리 이후마을까지 복구되면서 제주도 4·3사건은 막을 내렸다. 이때도 경찰은 폭 1.5m, 높이 2~3m의 성을 쌓은 후에 입주를 허용했다. 이로써 4·3사건 이후 모든 마을이 복구되었으며 1948년 말부터 마을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실로 5~6년 만에 고향땅에서 살게 된다.



▲ 낙선동성 총구 흔적

그러나 4·3성은 마을의 구조와 위치를 완전히 바꿔놓은 곳이 많았다. 특징을 세가지로 정리해 보면, 첫째, 대체로 성담이 있던 곳이 마을의 중심지가 되버려 4·3사건 전의 위치보다 훨씬 아래쪽(해안 쪽)에 재건되었다. 수망리, 색달리, 상대리, 송당리, 덕천리 등이다. 둘째, 원래 있던 마을은 사라지고 새로운 부지에 마을이 건설된 곳도 있다. 상천리, 구역리, 동광리, 봉성 2구 등이다. 셋째, 마을의 본동 주변에 흩어져 있던 소규모 자연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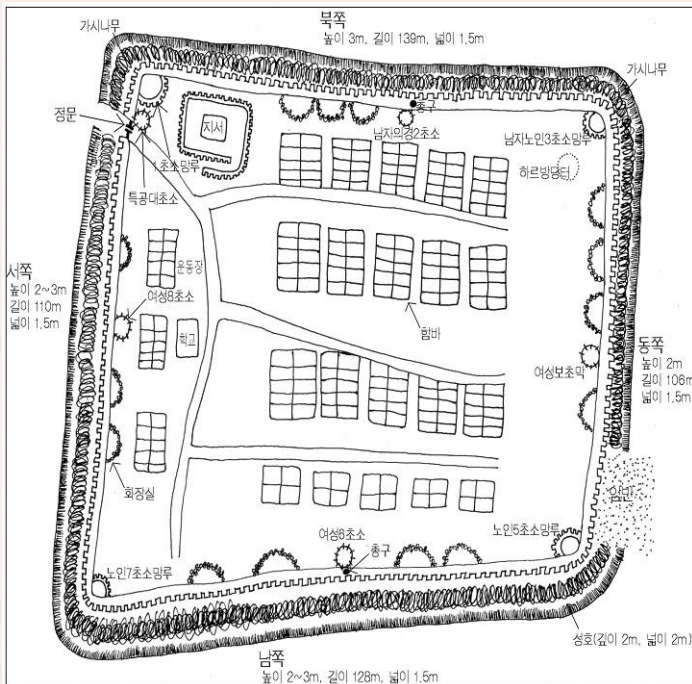
을들이 사라지고(흔히 ‘잃어버린 마을’ 이라 부르고 있다.) 본동에 흡수되어 재건되었다.

4·3성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선흘리 낙선동 4·3성은 당시의 모습이 잘 남아 있어 복원하고 있다. 낙선동 마을 사람들에게 당시 생활상을 들어서 정리해 보았다.

경찰은 1949년 3월 경에 마을이 없던 알선흘(낙선동) ‘병두왓’ 지경에 “개미가 보리쌀 물어가듯 돌을 등짐으로 날아가다...” 성담을 쌓게 한 후에, 함바를 지어 선흘리, 와산리 사람들을 들어가 살게 하였다. 이곳에서 사람들은 1954년까지 ‘알선흘 함바’ 라 부르는 함바(연립형 주택)공동체를 이루며 고난의 시절을 함께 보냈다.

4·3성에는 제주 여성의 피와 땀이 서려 있다. 여성은 성을 쌓는 것은 물론 성담 경비도 담당해야 했다. 낙선동 4·3성에 9개의 초소막 중에 4, 6, 8초소막은 여성 전용이었다. 모자란 남자들의 자리를 여성들이 채워야 했으며, 제주 4·3 이후 초토화 된 제주 땅을 일군 것도 제주 여성들의 몫이었다. 남자들은 희생도 컸을 뿐만 아니라 한국전쟁까지 겹치면서 남자 부족 현상이 더 심했다. 그러므로 여성의 부담은 가중되었다.



▲ 선흘리 낙선동 4·3성 구조도

성안에서의 함바 안에는 냄비나 솥을 돌 위에 얹어놓으면 부엌이고, 누워 자면 방이었다. 비가 오면 비를 맞고, 밤이 되면 별 보면서 잠을 잤다. 함바 가운데에는 화로 구실을 하는 봉덕으로 추운 겨울을 버텨보지만 자칫하면 불나기 일쑤였다. 화장실은 성담 붙여서 반원 모양의 돌담을 쌓고, 그 안에 디딜팡 두개를 놓으면 되었고, 성벽 마다 칸칸이 4개 정도 있었고, 조금 여유 있는 집에서는 돼지도 길렀다. 사람 수는 많은데 화장실은 적어, 화장실이 넘치기 일쑤였고, 냄새는 지독했으며, 비가 오는 날이면 돌담구멍으로 구정물이 줄줄 흘러나왔다. 이런 화장실 문제로 이질에 걸리는 사람이 많았다.

제주의 문화

이런 비위생적인 문제는 물이 없었기 때문도 한몫했다. 함바에는 물이 없고, 성 밖에 봉천수인 ‘마랭이물’이나, ‘구릉밭’, ‘병작이물’ 등에서 길러다 먹었다. 물은 공동으로 길러오는 것이 아니라, 집집마다 길러왔기 때문에 남자가 없는 집은 매우 곤란했다. 먹을 물도 모자랐기 때문에 사람들의 몸에는 이가 바글거렸고, 냄새도 지독했다.

먹을 것은 밀주시(밀채), 톨(툓), 패, 물웃(말리지 않은 우뭇가사리), 쑥, 모시잎 등을 가루 조금 넣고 버무려서 범벅을 만들어 먹었다. 그나마 조금씩 배급 주는 안남미는 제사 때나 명절 때 쓰려고 고히 간직해 두어야 했다. 토벌 갔을 때 묻어두었던 식량들을 꺼내오기도 하고, 들판에 돌아다니는 말이나 소를 잡아다가 경찰들과 구워먹기도 했다.

양력 11월 말경이 되면 함바는 명절이나 다름없이 제사가 많다. 많은 사람들이 같은 날에 희생당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굶으명도 제사한다고. (음력)10월 나민 명절이주. 정부에서 준 것이 알량미라고. 쌀 배급을 주면 그걸 마음대로 많이 먹어져? 그걸 해그네 집에 곱져둬서 제사때나 명절때나. 그릇도 어서 노난, 밥 양푼이 큰거 하나해서, 메(멧밥)해서 밥해놓고, 열이면 열. 두개면 두 개씩 꽃아난. 무슨 그릇이 이시냐? 옛날에 낭으로 밥 도고리를 만들엉 썼주.(고성준, 여, 85세)



▲ 복원된 낙선동 성을 바라보고 있는 주민의 모습

현재 낙선동 4·3성은 제주도에서 4·3유적지 복원계획에 따라 복원을 완료하여 4·3유적지로서의 면모를 선보일 날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4·3 당시의 생활상을 느끼고 체험하는 데는 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